"명품수업 조건 10가지"

동부교육청, '새수업프로젝터즈' 운영위원 워크숍 개최

〈대전〉 대전동부교육청(교육장 김동규)은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특색 사업으로 2009학년도 새수업프로젝터즈 운영위원 워크숍을 4일(목)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명품수업의 조건 10가지'라는 주제의 특강(장래광 대전법동중 교장)과, 팀별 교과위원을 중심으로 교과별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새수업프로젝터즈는 교사, 교감, 장학사로 구성된 10개 교과, 15개 팀, 71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자율교과연구회를 주관하며, 계획-실천-정리 단계에 따라 수업공개 및 워크숍의 형태로 연구 과정을 갖고 그 결과를 학교 현장에 일반화시키고 있다.

1997년 선도교사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13년째 맞이하는 새수업프로젝터즈 운영은 9월부터 교과팀별 공개수업을 24회 실시하고, 각 팀에서 연구된 교수·학습 자료와 다양한 산출물들은 12월에 에듀랑에 탑재하며, 운영사례집을 발간하여 일반화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청 이정호 중등교육과장은 "특색 있는 새수업프로젝터즈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방법은 다양한 정보 공유와 공동사고에 의한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볼거리 많았던 과학 축제"

2009 울산과학기술제전 개최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울산광역시동천체육관에서 울산시와 공동으로 '2009 울산산업박람회&과학기술제전'을 개최했다.

교육청은 '과학기술제전' 분야를 맡아 '과학축전'과 '직업교육축전'으로 나누어 준비했다.

과학축전 분야에서는 주제별 과학체험부스 44개가 운영됐고, 과학대회로는 창작곤충만들기대회가 열렸다. 또 과학마술을 통하여 과학원리를 이해하도록하는 사이언스매직쇼와 수학체험전, 과학교구체험을 통해 과학은 일상생활이라는 모토아래 '놀면서 배우는 과학교구체험전'이 열렸다.

직업교육축전 분야에서는 전문계 9개 학교의 직업교육체험 및 전문계고 홍보 부스 21개, 울산노동지청의 진로 적성 검사 및 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관련 부스를 운영했다.

울산에서 네번째로 열리는 과학기술제전은 작년보다 더 풍성한 체험 및 볼거리를 준비됐으며, 한양대 이동과학차의 과학공연과 첨단과학부스운영, 한국곤충나라의 곤충·식물 생태체험전, 창작곤충만들기대회, 나무야 놀자, 사이언스매직쇼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축제분위기를 한 층 돋웠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보고, 느끼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과학기술의 생활화와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민의 과학기술 잔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경준 기자
skj@eduyonhap.com

아빠와 함께 울고 웃었던 '가오장미축제'

◆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오장미축제'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대전〉 대전가오초등학교(교장 박지하)는 지난 2일(화) 저녁 7시 90여 가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빠와 함께하는 가오장미축제'를 개최, 많은 가족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든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마련됐으며, 교정 한 가득 활짝 핀 장미꽃을 보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운데 평소 소홀했던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열렸다. 학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가족적인 모습이 무엇보다 이색적인 자리였다.

이 날 행사는 학부모, 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1부 공연마당과 참가자 가족이 함께 했던 2부 가족마당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다.

특히 2부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특강, 아내의 발 씻어주기, 가족 간 편지, 가족이 사랑스러운 이유 등을 낭독하면서 참가자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대전가오초등학교 관계자는 "이 날 함께했던 90여 참가자 가족들에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구효명초 충혼탑 참배

〈대구〉 대구효명초등학교(교장 김수향)는 4일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들과 학생 110여명이 앞산 충혼탑에서 참배를 했다.

'충혼탑 참배' 활동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청소년 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람단, 해양단, 걸스카우트, 컵스카우트 4개 단체 소속 학생들이 단복을 단정하게 입고 경건하게 묵념을 올렸다.

참배 후에는 각자 준비한 쓰레기 봉투에 기념관 주위와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학생들에게 충혼탑 참배·체험활동을 통해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분들의 호국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섬마을 아이들의 기적"

천가초등학교 방과후교실 활기

◆ 학습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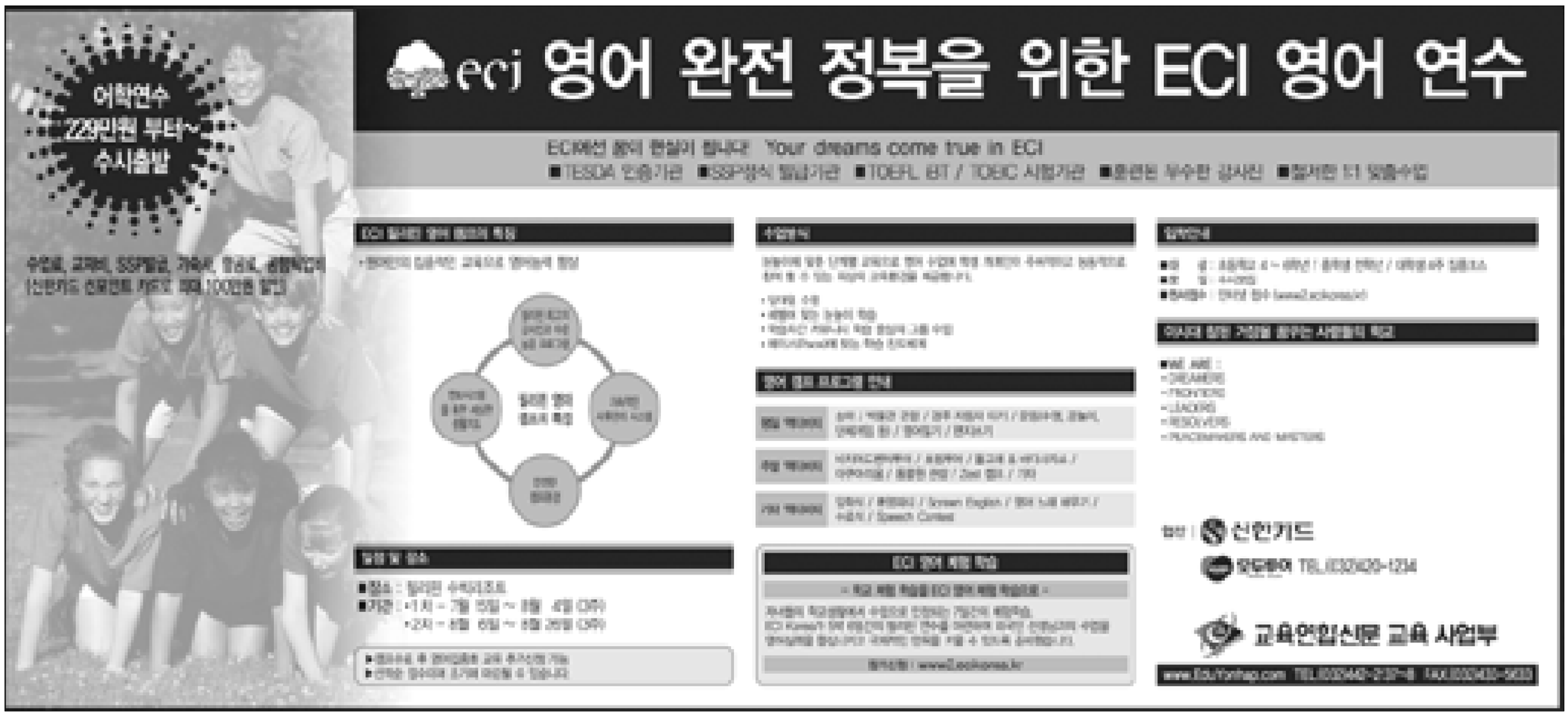
〈부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관내 천가초등학교는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섬마을로학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과후교실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중 Talk 장학생 메튜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과후 영어교실은 소외된 학생들의 가슴 속에 영어에 대한 자긍심, 자신감, 도전정신을 키워주고 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관내 천가초등학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인 가덕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가초와 2개의 분교(대항분교, 천성분교)가 있다. 학생의 50%가 소양보육원생으로 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문화 실조' 현상이 뚜렷하며, 교사들이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 5월 19일 천가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실(2009년 4월 28일 개관)에는 Talk 장학생 메튜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육원 담당자, 시교육청 국제교육담당자, 또 5교시 영어과 교실수업지원 장학을 지원하기 위해 온 북부교육청 최성미 장학사, 소양보육원 원장과 보육원 교사 4명이 방문하여 Talk 장학생 메튜와 3학년들의 영어 방과후교실 수업을 참관했다.

◆ 영어체험학습실 개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과 교포를 선발해 국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방과후 영어 강사로 배치하는 프로그램인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지원한 메튜는 생후 8개월 때 미국에 입양되었다. 엄마의 나라가 궁금해 Talk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메튜는 미국 가정에서 받은 혜택을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고아들에게 베풀고 싶어서 천가초에 자원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 Talk 프로그램 담당자는, 메튜와 함께 초롱초롱한 눈빛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즐겁게 영어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섬마을 작은 학교에서 Talk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 감동적이며, 메튜와 천가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영어 교육의 큰 그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며 이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천가초등학교 학생들은 올 7월이면 Talk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메튜 선생님과의 이별도 모른 채 메튜 선생님의 밝은 웃음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긍심을 갖고 영어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 더 큰 세상을 향한 꿈들을 키우고 있다.